

이집트, 무바라크 퇴진 후 첫 총선으로 이슬람정당 집권

1. 총선결과 요약

□ 무바라크 퇴진 이후 첫 자유 총선

- 경제난으로 고통받던 국민들이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 민주화 시위의 영향을 받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일으켜 2011년 1월에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독재 정권이 붕괴되었고, 2011년 11월에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한 첫 총선이 실시되었음.
- 이번 선거에는 50개 이상의 정당과 1만 명이 넘는 후보자가 참여하였으며, 하원·상원의원 선거가 각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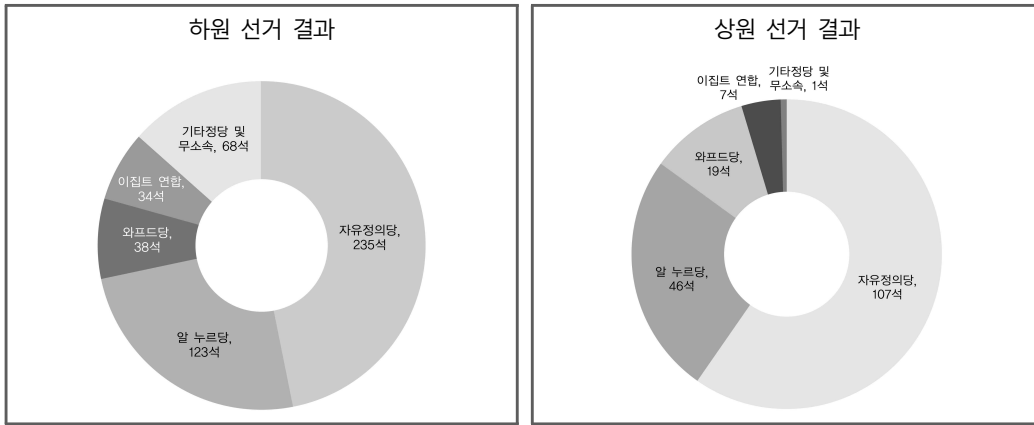
□ 이슬람 정당의 압승

- 하원의원 선거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1차 투표에서는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62%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음.
- 하원의원 선거에서 무슬림형제단(Muslim brotherhood)이 이끄는 자유정의당(Freedom and Justice Party)은 전체 498석 중 235석을 얻어 제1당이 되었고,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알 누르당(al-Nour Party)은 123석으로 제2당으로 부상하였음.
- 상원의원 선거는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, 선거 결과 자유정의당이 전체 180석 가운데 과반인 107석을 확보하였고, 알 누르당은 46석을 얻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상원에서도 이슬람정당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음.



<그림>

2011-2012 이집트 총선 결과



자료: 필자 작성.

- 와프드당(Wafd party)¹⁾과 진보성향의 이집트 연합은 각각 19석과 7석을 획득하였음.
- 한편, 대선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, 4월 30일부터 3주간의 선거 유세 기간 후 5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대선이 실시될 예정임.

2. 총선 결과에 따른 대내외 변화

□ 폐쇄적 이슬람주의로 인한 정치·경제적 퇴보 우려

- 무바라크 퇴진 이후 민주화 및 정치개혁의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, EIU가 평가한 이집트의 2011년 민주주의 지수는 총 167개국 중 115위로 전년보다 무려 26단계 상승하였으며 권위주의 체제국가²⁾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음.
- 그러나, 최근 총선에서 이슬람 정당들이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자, 향후 정치·경제적으로 퇴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 - 무슬림형제단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, 향후 국민들의 자유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임.

1) 와프드당(Wafd party): 무바라크 시절의 집권 여당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속주의 정당임.
 2) 권위주의 체제국가: EIU는 5개 항목(선거절차 및 다원주의, 정부의 기능성, 정치 참여, 정치 문화, 시민의 권리)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0~4점을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함. 총 167개국 중 53개의 국가가 권위주의 체제 국가임.



-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자(salafist)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2당인 알 누르당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 콕틱교(coptic)³⁾ 등 소수 종교를 억압하여 사회 불안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.
- 근본주의자들은 2011년 5월에 콕틱교회 방화 사건을 일으켜 약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, 10월에도 콕틱교도들과 충돌하여 약 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종교 갈등을 일으킨 바 있음.
- 또한 이슬람 율법이 관광객에게도 적용되어 음주 및 노출이 심한 수영복 착용 등이 금지될 경우 최대 외화수입원인 관광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.

□ 대 이스라엘 관계에도 불확실성 증대

- 이집트는 1979년에 아랍국가로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. 그러나 최근 이슬람세력이 집권함에 따라 반이슬람국가인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- 2012년 3월 12일에 의회는 이집트 주재 이스라엘 대사의 추방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, 이스라엘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양국 간의 모든 관계를 재고할 것이라고 밝힘.

□ 정치적 변화로 인한 신용등급 변화는 아직 없어

- 2011년 초 민주화시위 발생 이후 정국혼란 및 치안불안으로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이 여러 차례 강등된 바 있으나, 금년 총선 이후의 신용등급 변화는 아직까지 없음.

<표> 민주화시위 발생 이후 주요기관 국별 신용등급 변화 추이

평가기관	등급 변화
OECD	4등급(2011.3) → 5등급(2012.1)
S&P	BB(2011.2) → BB-(2011.10) → B+(2011.11) → B(2012.2)
Moody's	Ba2(2011.1) → Ba3(2011.3) → B1(2011.10) → B2(2011.12)
Fitch	BB(2011.2) → BB(2011.6) → BB-(2011.12)

자료: 각 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.

【박 유 정】

3) 콕틱교(coptic): 이집트의 토착 기독교로 로마가 이집트를 지배하던 시기에 번성했으나, 무슬림의 지배 이후 쇠퇴하였음. 현재 이집트 국민의 약 9%가 콕틱교도임.